

성공적 1군 데뷔 KIA 홍원빈 “‘필승조’ 되겠다”



7년만의 벽찬 무대에서 150km대 강속구로 ‘눈도장’
김호령 등 동료들도 축하 “시즌 끝까지 함께 가자”

7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 우완 홍원빈이 2025년 6월 3일 기다렸던 날을 맞았다.

홍원빈은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의 시즌 7차전에서 11~2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올랐다. 큰 점수 차에 이뤄진 등판이었지만 홍원빈에게는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었다.

2019년 덕수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홍원빈의 프로 데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195cm의 장신 선수인 홍원빈은 150km가 넘는 공을 뿌리는 강속구 투수다.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이라는 무기까지 갖추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제구’라는 약점에 막혀 홍원빈은 기다렸던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겨울 홍원빈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비를 들어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스를 찾아 투구폼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홍원빈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첫 연습경기에서는 제구 난조로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지만 시범경기에서 전광판에 154km를 찍으면서 어릴 무대도 펼쳤다.

육성 선수 신분이었던 홍원빈은 정식 번호를 받는 날을 기다렸다.

불펜 위기가 이어지면서 홍원빈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몸상태가 좋지 않아 한 차례 풀업이 미뤄졌었다.

그리고 홍원빈은 지난 29일 키움과의 홈경기가 끝난 뒤 수원으로 향하는 선수단 버스에 탑승했다. 30일 마침내 홍원빈은 ‘30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달고 1군 엔트리에 처음 등록됐다.

KT 위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박병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던 홍원빈은 3일 드디어 출격 명령을 받았다.

7년을 기다려 던진 첫 공이 152km를 찍으면서 만원 관중이 들어찬 잠실 구장에는 환호성이 나왔다. 이어서도 150km가 넘는 공이 연달아 포수 미트로 향했지만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면서 프로 첫 기록은 불렀.

이후 1사에서 중전 안타를 맞은 뒤 희생플라이로 1실점을 했지만, 김인태를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감격스러운 데뷔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홍원빈은 삼진으로 이날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3루 관중석을 올려봤다.

홍원빈은 4일 “상상만 했던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해냈다고 생각하니까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포기 안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

다”며 “팬분들이 이름을 외치시는 게 들렸다.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감격스러워서 그 장면을 눈에 담기 위해서 관중석을 본 것 같다”고 전날 장면을 설명했다.

불넷으로 시작했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홍원빈은 “몸풀 때부터 컨디션이 좋아서 긴장은 안 됐다”며 “불넷을 칠 때 예전처럼 긴장해서 몸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준 것은 아니었다. 가운데 던지려고 했는데 뭔가 안 맞았다. 그래서 흔들릴 틈이 없었다. 똑같이 계속 던지자고 하면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삼진을 잡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패전조도 감사하지만, 필승조가 몸 풀고 나가는 상황이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함께 1군 무대에서 뛰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했던 외야수 김호령도 후배의 데뷔전을 축하하면서 ‘결승선’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8살 차이지만 ‘성실함’으로 통한 특별한 선후배다. 스프링캠프 룸메이트였던 두 사람은 함께 경기를 뛰는 것을 올 시즌 목표로 이야기했고, 드디어 그 꿈을 이뤘다.

홍원빈이 데뷔전을 펼친 이날 김호령은 3안타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김호령은 “뒤에서 보면서 내가 더 긴장했다. 내가 공을 던지는 느낌이었다”며 “올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1군에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홍원빈이 지난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7차전에서 11~2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올라 공을 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논두렁 잔디구장’ 오명 벗었네

‘그린 스타디움상’ 수상

‘논두렁 잔디’로 곤욕을 치렀던 광주FC가 ‘그린 스타디움상’ 수상 구단으로 거듭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K리그1 1~13라운드의 관중 유치, 마케팅, 잔디 관리 성과를 평가해 ▲그린 스타디움상 ▲풀 스타디움상 ▲플러스 스타디움상, ▲팬 프렌들리 클럽상 수상 구단을 발표했다.

광주FC는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한 구단에 주어지는 그린스타디움상 주인공이 됐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경기감독관 평가(50%), 선수단 평가(50%)를 통해 수상 구단이 결정된다. 광주는 광주시체육회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첫 그린스타디움상 영예를 안았다.

광주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사용하던 지난 시즌에는 ‘논두렁 잔디’로 달갑지 않은 조명을 받았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서도 잔디 논란은 이어졌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광주는 ‘그린 스타디움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명예 회복을 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이어 제주SK FC 홈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 FC안양 홈구장 안양종합운동장이 각각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구단에 주어지는 ‘플러스 스타디움상’은 FC 서울의 차지가 됐다.

서울은 1~13라운드 기간 열린 6번의 홈경기에서 K리그1 12개 구단 중 가장 많은 2만9848명의 평균



광주FC가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K리그1 1~13라운드 ‘그린 스타디움상’ 주인공이 됐다.
광주FC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전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유료 관중을 동원했다.

지난 시즌 평균 대비 가장 관중수가 증가한 구단에 수여되는 ‘플러스 스타디움상’ 주인공은 안양이다.

지난 시즌 평균 유료 관중 5250명을 기록했던 안양은 올 시즌 3129명 늘어난 8379명의 유료 관중을 불러 모으면서 1위에 올랐다.

대전하나시티즌은 가장 팬 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구단으로 선정돼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받는다.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마케팅, 팬 서비스 등에 대한 1차 심사위원회 평가(40%), 2차 그라운드 투표(기자단 40%, 팬 20%) 점수를 더해 선정된다. 대

전은 MD샵 및 F&B 시설 개선, 마스크트 활용 마케팅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1등(94.6점)을 차지했다.

2위는 울산HD(91.6점)로 원정 팬 대상 여행 상품 기획, 구단 동요 출시 및 어린이날 이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K리그 최초 테이בל석 배달 주문 서비스 제공, ‘FC서울 x GS25 컨셉스토어’ 및 ‘짱구는 못말려’ 협업 등을 진행한 서울(84.8점)은 3위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5년만의 이라크 원정 ‘홍명보호’ “11회 연속 월드컵 간다”

북중미 월드컵 亞 3차예선 9차전
4승4무로 B조 1위…비겨도 진출

한국 축구가 35년 만의 이라크 원정 A매치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매듭지으려 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3시 15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3차 예선 두 경기씩을 남겨놓은 현재 4승 4무(승점 16)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요르단(3승 4무 1패·승점 13), 이라크(3승 3무 2패·승점 12) 등을 제치고 B조 6개국 중 선두를 달린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다.

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이라크가 59위다.

역대 국가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해 10승 12무 2패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쓴맛을 본 것은 승부차기 패배라서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남은 2007년 아시안컵 준결승 때다. 당시 연장까지 0-0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졌다.

정규시간 경기에서 패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0-1로 진 것이 마지막이다.

한국 선수단은 현지시간 3일 오후 9시(한국시간 4일 오전 3시) 알파하스타디움에서 이라크 입성 후 첫 훈련을 했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 훈련에서 포지션별로 북수의 선수를 두루 기용하면서 이라크전에 적합한 선수가 누구일지를 살폈다.

대표팀으로서는 현지 날씨와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 최우선 과제다.



손흥민



이강인

현지 기온은 낮 시간대는 최고 45도까지 치솟고, 저녁 시간대에도 35도에 머문다.

게다가 현재 대표팀에서 이라크 원정 A매치를 경험한 이는 선수, 지도자를 통틀어 홍명보 감독이 유일하다.

한국이 이라크에서 원정 경기로 A매치를 치른 것은 1990년 2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친선경기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 선수였던 홍 감독이 선발 출전한 경기다.

/연합뉴스

전남 호난·발디비아 K리그2 14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홈 3연승을 합작한 호난과 발디비아가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일 K리그2 14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 명단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브라질 듀오’ 호난과 발디비아가 이름을 올렸다.

호난은 지난 3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화성FC와의 홈경기에서 발디비아의 패스를 받아 전반 4분 만에 머리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두 사람은 1-1 맞선 전반 34분 다시 골을 합작했다. 이번에는 호난의 패스를 발디비아가 오른 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후반 25분 동점골은 허용했지만 후반 32분 김도윤의 ‘행운의 골’로 3-2 승리를 거뒀다. 알베르피의 슈팅이 문전에 있던 김도윤을 스쳐 화성 골대로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전남은 올 시즌 홈 3경기를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다.

한편 14라운드 MVP는 부산 아이파크 백가은의 차지가 됐다.

백가은은 지난 31일 서울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베스트 매치’는 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발디비아



호난

천안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날 천안은 전반 20분 우정영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전반 22분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인천이 전반 43분 무고사, 후반 11분 제르소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경기는 3-3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천안 이적협이 후반 23분과 후반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베스트 팀은 수원이다. 수원은 1일 진행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세라핌, 김지현, 일류첸코의 득점포를 앞세워 역전승을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